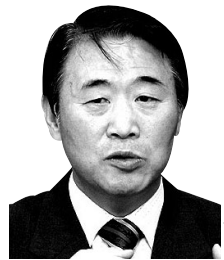


불자 세상보기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12월 9일 19대 정기국회가 끝날 때 정의화 국회의장은 "19대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말 시한까지 "선거구획정마저 안 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국민의 눈에 19대 국회는 이미 최악의 국회다.

우선 19대 국회는 민생과 국가발전에 긴요한 법안들은 몇 년 채 처리 안하고 방치했다. 국회가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주요 법안들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중부 투자 업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명 원샷법, 노동 개혁 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다. 국회가 이러한 법들의 통과를 저지함으로써 정부는 어떠한 새로운 일도 못하고 국가는 위기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19대 국회는 일하지 않는 식물 국회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법안 처리 실적에서 19대 국회는 2012년 개원 이후 총 1만7309건(의원입법·정부제출 포함)의 법안 중 5566건을 처리하여 약 32.2%의 법안처리율을 보였다. 18대 국회의 44.8%(1만3212건 접수·5920건 통과), 17대 국회의 50.28%(7138건 접수·3589건 통과)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1만 여건이 자동 폐기된다.

국회선진화법이 입법 발목 잡아 20대국회 인적구성 바뀌길 기대 승가 '멸쟁법'의 지혜 발휘해야

19대 국회는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관련 없는 다른 법안들은 정략적으로 끼워 넣기 하는 국회로서의 악명을 얻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무원 연급개혁법을 통과시키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끼워 넣기 한 일이다. 그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대통령거부권 발동으로 무산된 바 있다. 또 하나의 예는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약칭 아문법)이다. 야당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5조 8천억 원(민자 1조 7천억 원) 예산의 아문법은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경제활성화법을 함께 통과시켜준다는 대가로 야당과 빅딜을 건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아문법만 통과시켰다.

19대 국회는 의원들의 갑질과 저질 막말이 극에 이른 국회로도 기억될 것이다. 어떤 의원은 시집을 출간한 뒤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 산하 공공기관에 판매했고 또 다른 의원은 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낙제한 아들을 구제하려고 학교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탈북자들에게 "탈북자 XX"라는 폭언을 하는 의원이 있었는가 하면 대리기사에게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위세를 부린 의원이 있었다. 심지어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대해서 저질 막말과 욕설을 하는 경우도 한 두건이 아니다. 20대 국회의 최대의 과제는 이런 잘못된 제도와 관행 그리고 인적구성을 과감히 바꾸어 정상적인 국회를 건설하는 일이다.

발언대

동국대 학내 갈등 어디까지 가나

12월 3일 제297차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 사퇴로 갈등이 해소되는 듯 싶었던 동국대 사태가 다시금 재점화되고 있다. 원칙에 입각한 학교운영과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목소리가 서로 맞서고 있다. 이에 각계의 목소리를 들어 보았다. <편집자주>

이사 전원 사퇴결의, 나쁜 선례 남겼다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재단이사회는 지난 12월 3일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제297차 회의를 갖고 "현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며 전원 사퇴한다"고 법인 사무처를 통해 발표했다. 이와 같은 성명은 물론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나온 것임으로 문장 그대로만 보면 현재 동국대 재단은 해체상태로서, 입자 없는 무주공산이 된 셈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을 현 동국대 이사들은 저질렀다.

장과 이사 전원이다. 뭐 사람은 살리고 보아야 한다는 게 명분이란단. 그런데 이사들이 이런 감상주의를 가지고는 동국대를 위시해 산하 학교가 10여개나 되는 거대 재단을 이끌어 갈 수 없다. 사립학교에서 총장이나 이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학생, 교수들의 데모나 단식 농성은 왕왕 있어 온 일이다. 조금 마한 빌미만 있으면 비밀 비재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학에서 이들의 요구를 따라 이사회가 총사퇴하는 일을 없었다. 모든 학사와 학생지도는 각급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학교에서 해결 일이지 법인이 관여 할 일은 아니다. 법인은 학교장을 상대로 관리 감독을 하면 된다.

이번 동국대 법인은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학생이 장기 단식 농성만 밀고 나가면 법인이 항복하는 그런 선례 말이다. 동국대 학생이나 교수, 동문들 사이에선 동국대가 성균관대나 중앙대처럼 되기를 바라는 세력도 있다. 중단이나 법인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새겨야 한다.

'불통'이 문제를 키웠다



한만수 동국대 교수협의회장

1년 동안 지속되어 온 동국대 사태가 일면 스님의 입장표명을 통해 일단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게 되니 참으로 유감스럽다. 당사자는 억울하다고 말한다. 맹화를 흠뻑 바 없고 단지 분실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 해명을 듣고서도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적지 않다.

그 이후에 우리 비대위는, 만일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소문마저 거부한 책임만은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퇴를 요구하게 되었을 따름이다. 해당 스님은 중앙총회를 코앞에 두고서야 해명하고 일부 언론을 고소했다. 그러면서도 막상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혜문 前승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지난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퇴진을 요구했다고 전해지는 것 역시 당연한 노릇이다. 결국 이 모든 일은 당사자가 자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임기 내 이사회를 열지 않아 이사장 유고사태를 불렀으며, 차기 이사장은 포기한다면서도 이사직 사퇴에 대해서는 명백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사장 직무대행도 자신이 지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사회 결의 취지를 정면 거부한 셈이다. 이제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따라서 동국대 사태는 좌우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社說 새해엔 소통·화합 꼭 이루자

2015년 을 한해는 정말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 굵직한 행사도 많았고, 범계 의혹부터 종단 내 폭력사태 등도 벌어졌다. 그 중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범계의 경우 해 마다 불거지기는 문제이지는 하지만 특히 올해에는 그 수위가 매우 높았다. 주로 주지 등 직함을 가진 쪽과 반대쪽 스님, 신도가 서로에게 무분별한 비방과 폭로, 이로 인한 법적 조치를 하면서 문제가 점차 확대되는 형국이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화살은 종단 집행부에게 돌아가는 비판의 악순환 구조가 이뤄졌다. 동국대의 경우 이사장 일면 스님의 흥국사 평화 절도 의혹을 놓고 한해 하내 갈등이 최고 수위까지 이르렀다. 김건중 부총학생회장은 50일 간 단식을 했고, 결과적으로 조건부 이사진 사퇴를 이끌어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진전은 있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 같은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

한국불교의 발전과 화합을 이야기해야 한다. 단초는 올해에 있다. 한 가지가 대중공사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각계 각층의 대중이 공사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불교계에 부족했던 토론 문화 증진과 구성원 간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용된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한상근 민주노동 위원장의 24일 간 조계사 피신 사태에서 불교계는 '화쟁 정신'을 바탕으로 갈등을 봉합하려 많은 노력을 했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사태가 마무리됐다. 화쟁의 방법론적 접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속제는 남았지만, 서로의 이견을 '화(和) 하는 정신은 종교로서 불교가 견지해야 할 자세이다. 대중공사의 마음으로 소통하고 화쟁의 정신으로 화(和)한다면 내년 불교계는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다. 소통과 화합의 소식이 내년에는 전해지길 기대한다.

JSA에 법당불사 원만 회향되길

조계종 균종특별교구가 내년부터 공동경비구역(JSA) 내 법당불사를 시작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균종교구는 12월 10일 국방부 원광사에서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JSA 내 법당 신축을 의결했다. 신축법당은 JSA 안보견학 교육장 옆에 위치하며 고려시대 전통을 되살린 목조건축물로 지어질 예정이다. 법당은 25평 규모로 신축법당 내에는 아미타 삼존불과 순국선열 위패를 봉안하는 무량수전이 자리하게 된다. 일반인들도 출입 가능한 JSA법당에서 균종교구는 부처님오신날 등에 평화기원 행사와 함께 타종식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불교계는 JSA 내 종교 중 가장 열악한 시설을 지니고 있었다. 개신교는 교회, 가톨릭은 공소가 JSA 내에 있었다. 기존 법당으로 활용되던 영수사 건물은 막사를 개조한 것으로 외부에서는 법당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균종교구 내 예산 21억 원과 함께 불사특별회계로 5억 원을 책정해 놓았다. 법당이 완공되면 JSA 근무 군장병들과 연간 수만 명의 국내외 안보현장 견학자들이 한국전통문화의 정수인 불교문화를 접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균종교구는 신규 사업으로 간부와 군가족 템플스테이가 진행되는 것도 눈여겨 볼 만하다. 각종 군법당 불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으로 군법당 표준설계안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설계비용을 아끼고, 군법당 신·증축을 원활히 한다는 계획이다. 군포교는 미래불교의 텃밭과 같다. 그러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균종교구의 신년 계획들이 누수없는 군포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되길 기대하며, 사부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인사총괄팀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연발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발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062)512-5003 전북지사: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사: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宗正 홍산 현불 종도모집 〇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〇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총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